

나치스의 哲學者 하이텍겔

申南澈

「人間이 存在하는 以上 哲學的 思索은 없을 수가 없다」고 哲學者로서의 榮譽(!)를 極하고있는 「마르틴·하이텍겔」은 그의 『形而上學이란 무엇이냐』라는 그가 一九二九年六月二十四日 푸라이브록大學에서 한 就職演說에서 말하였다. 얼른 듣기에 꽤 平凡한 말 같고 事實 또 아주 陳腐한 말이다. 우리가 듣기에 그만한 말은 「나도 할 수 있다」고 할만치 아무 特色이 없는 말이다. 그러나 그는 이 簡單한말 가운데에 그럴듯한 意味內容을 包含시키고 있는것이다 이때까지의 哲學者들도 그만한 말을 다하였었고 哲學者아닌사람으로서도 아무 깊은考慮도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그는 이 平凡하고 簡單한말을하기에 애도 많이 썼고 工夫도 많이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가 말한 이 짧은 箴言비슷한 말이 우리들에게 이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아주 深奧한 哲學的 思索이나하여 哲學者아닌 사람들에게 이런 듯이 자랑거리나 삼으라는 듯도 보이면서도 실상인즉 그의 이 말은 무슨 宇宙 人間을 透徹하는 萬古의 眞理를 俗人들에게 啓示하려는 것도 아니고 단지 起居行動하며 喜怒哀樂하는 人間의 日常生活을 이리 굴리고 저리 따져서 생각하여보니 아무래도 「人間이 存在하는 以上 哲學的 思索은 없을 수가 없다」고 한번 외쳐본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말이 그自體만가지고보면 그럴 듯도 하지만 그의 哲學生體系와 現今의 世界乃至 獨逸의 쓰리고 아픈 現實生活과의 關聯밑에서 嚴格하게 따져 본다면 너무도 우리의 期待-期待라기 보다는도 痛切한 現實的인 願望과는 □□의 差가 있는 것을 發見하고 이렇듯 失望을 하고 마는 것이다!

現在에 있어서 哲學을 云謂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하이텍겔」을 모르고는 행세를 못할 만치 그는 有名한 春秋富한 哲學者이다. 그러나 그같이 有名한 反面에 그의 哲學說에는 좀처럼 接近하기가 어렵다. 그의 哲學敍述의 態度는 참으로 물부어 셀틈 없이 꼭 짜여있다. 그의 哲學은 참으로 빈틈이 없어 論述이 整然하다. 이 體系的이란 點은 더 말할 必要도 없지만 從來의 哲學者들이 難解의 述語를 많이 造作하여 쓰고 있었음에 反하여 「하이텍

겔」은 아주 平凡한 日常生活의 用語를 그냥 쓰고 있다. 따라서 그의 文章은 一見 아주 平易하다. 그의 主著「存在와 時間」이나 그밖에 여러 論述을 보면 누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읽기는 읽었고 또 모를 글자나 語句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不拘하고 그 意味內容이 얼른 머리에 드러 오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읽어본다. 그래도 分明치 않아서 三讀四讀하고 또 턱을 고이고 생각하여 본 뒤에야 비로소 그 글의 前後의 關係와 뜻을 알게 된다. 이만치 그의 哲學은 平凡한 가운데 에서도 分析이 緻密하고 用意가 周到하다. 그리고 그의 哲學하는 態度와 方法이 從來의 그것과는 浬判이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그의 哲學을 하로 밤사이에 理解한다는 것은 妄想中에서도 큰 妄想이다. 勿論 누구의 哲學이던지 그렇게 쉽게 理解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하이텍겔」의 哲學은 알듯알듯하면서도 실상인즉 그리 쉽게 알려 지지 않는 哲學인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 自身亦 「하이텍겔의 哲學」도 알아보려고 해온지가 벌써 三四年이나 되지만 果然 얼마나 正確하게 그를 理解하고 있는지 스스로 疑問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는 어떠한 來歷을 가진 人物인가

一, 하이텍겔의 來歷

그는 一八八九年 九月二十六日 獨逸 「뻬스킬흐」라는 곳에서 出生하였다. 그의 家庭이 어떠한 學校教育을 받았는지는 寡聞인나는 아직 알 수가 없다. 「마이엘」의 百科全書增補版을 뒤져 보았으나 아직 仔細한것을 發見하지못하였다 그의 나이가 今年에四十四歲라 아직 젊은 탓으로 그런지 그의 傳記에 對하여 紹介된 것도 아직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가 카톨릭 信者로서 古典과 希臘 羅典語에 놀랄만한 知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著書를 보면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이다. 哲學上의 術語를 語源的으로 分析하여 그 意味를 밝히는 知識은 놀랄 만하다. 希臘 羅典語를 自由自在하게 驅使한다 더욱 希臘의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의 著書에 對하여는 모르는 것이 없는 모양이다. 獨逸에 留學하여 「하이텍겔」을 親히맛나고 도라온 어떤 이의 말을 드르면 한동안 希臘古典을 熱心으로 工夫하고 있더니 그것이 모다 그의 哲學的 著述에 利用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現象學의 創唱者 「에드문드·후스셀」(一八五九-)의 弟子로서 現象學을 工夫하고 있었으나 종에는 師 「후스셀」을 超越하여 그의 이른바 「그의 解釋學的 現象學」或은 「基礎的 存在論」을 主張하고있다. 그리하여 「후스셀」로부터는 「現象學」의 異端者視되고 있다.

一九二三年 「말브룩」大學教授에 就任하여 六年동안의 말하자면 그의 哲學의 準備時代를 經하여 一九二八年 그의 師 「후스셀」의 뒤를 이어 「푸라

이브룩」大學으로 轉하여 그의 活動期는 始作된것이다. 그는 다른 哲學者와 論議하는 것을 싫어하고 들관에서 農夫와 같이 卑近한 生活의 諸相을 이야기 하는것 을 즐겨한다고 傳하여진다. 카톨릭의 信者로서 繁華로운 生活을 避하고 조용히 日常生活을 요모조모 굴리고 따져서 思索하며 傳統的인 用語를 無視하고 늘 쓰는 말을 쓰면서도 自己自身の 獨特한 意味內容을 주고 있다. 事實 그의 哲學에 있어서는 이 「日常性」이라고 하는 것은 꼭이나 重要한 術語를 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四五年前에 卽 「푸라이브룩」으로 가기 前과 昨年에도 伯林大學의 招聘을 받았었다고 하나 그는 그것을 拒絶하고 南獨逸의 「푸라이브룩」에서 이내 大學總長의 地位에 까지 올르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昨年봄의 일이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많은 興味를끄는 點은 「나치스黨員으로서의 하이텍겔」이라는 것이다. (이 點에 對하여 後述) 猶太人과 良心있는 進步的인 有數한 教授들이 나치스의 暴壓下에 獨逸로부터 逐放을 當하고 있을 때 그는 나치스에 依하여 老大家로서 選舉에 依하여 推薦되는 從來의 獨逸의 大學의 慣例를 깨트리고 任命된 點 及 그것을 怡然히 받고 나치스의 大學改造에 協力하고있는 點이 吾人의 注目을 끌고 있는 것이다. 그가 나치스 黨員이 되었을 때 世界의 哲學界에서는 興味있는 話題를 삼았었다. 그것이 얼마 아니 되어 다시 「獨逸大學의 自己主張」이라는 大學總長就任演說에 依하여 불꽃을 돋았던 것이다. 哲學者는 大學總長이되며 政治에 關與하여서는 못쓴다는 법이 없거던 왜 그에게만은 그 같은 興味를 끌고 있는 것인가. 「헤겔」도 大學總長이 되었었고 「라이프니츠」라던가 「피히테」도 政治問題에 關與하지 않았는가……그러나 우리가 「하이텍겔」을 가지고 興味の 對象을 삼는 것에는 現代의 意味가 있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더욱 「파시즘」과의 關連을 가지고보는 點에서 그러한 것이다.

이에 그의 著書를 대강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一, 心理主義에 있어서의 判斷에 關한 學說(一九一四年)
 - 二, 「던스·스코투스」의 範疇論과 意味論(一九一六年)
 - 三, 存在와 時間 第一卷(一九二七年)
 - 四, 칸트의 純粹理性批判과 基礎的 存在論의 理念(一九二八年)
 - 五, 칸트와 形而上學의 問題(一九二九年)
 - 六, 根源의 本質에 對하여(一九二九年)
 - 七, 形而上學이란 무엇이나(一九三〇年)
 - 八, 獨逸大學의 自己主張(一九三三年)
- (最後의 七, 八의 兩冊은 講演原稿의 出版이다)

二, 最近의獨逸哲學과 「하이텍겔」

나치스의 徹底한 檢閱統制下에 獨逸의 諸新聞 日刊 週刊 月刊 할 것 없이 날마다 各地의 廣場과 街路에 舉行되는 무슨 大會니 紀念日이니 閱兵式이니 突擊隊祭니 또는 푸-러 (히틀러를 그들은 이같이 부른다. 指導者라는 뜻이나 總統이라고 □하고 있다)의 放送演說이니 하여 몇 萬 몇 十萬의 老若男女가 야단법석을 하고 있는 光景을 큰 寫眞과 큰 活字로 報道하고 있다. 그리하여 히틀러 總統下에 全獨逸의 大衆은 安穩한 生活을 하고 있고 또 收次할 수 있다는 것을 宣傳하며 大衆의 마음에 과시슴의 注射를 하고 있다. 現實적으로 微增해가는 社會的 不安과 生活의 苦痛을 잊고 第三帝國의 幻影下에 모여 들도록 하기에 汲汲하고있다. 왜 그러냐하면 나치스의 二十五個條의 綱領이나마 空手形에 不過한다는 確信이 獨逸大衆의 腦裡에 漸次澎湃하여가고 있는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이것을 본 나치스의 頭目들은 自階級の 蘇生을 꾀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까닭이었다. 이러한 荒暴한 努力은 獨逸과시슴의 現階級的 特徵이다. 과시스트 政府는 專혀 그들의 社會的 背景을 成하고있는 階級的 利益만을 爲한 經濟政策을 隱蔽하여 大衆이 과시슴으로부터 離脫하여가는 過程을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끌기爲하여 그와 같은 行進과 演說의 야단법석을 必要로 하였다. 그리하여 뒤를 이어 國民大衆을 저 이쪽으로 이 끌어오는 개롭은 이데오로기를 必要로 하는 것이었다.

이 이데오로기의 直接或은 間接이 表現形態로서는 여러 가지의 文化諸部門에 있어서의 現象을 例示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곳에 말하려는 哲學에 있어서는 普通으로는 그것의 社會的 性格에 對한 明白한 規定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大體로 哲學이라는 것이 具體的인 現實的 物質生活과는 그 緣이 멀다고 생각되어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哲學처럼 現實生活의 反映인 理說은 없을 것이다. 現今의 獨逸이 겪고 있는 對內的또는 對外的 危機는 일즉이 겪어보지 못한 規模에서 國民의 生活을 全般的으로 惡化시키고있다. 哲學이 이러한 때에 形而上學을 主流로하여 有象無象의 理論을 展開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 哲學徒에 있어서는 한 興味있는 問題이다. 現今獨逸의 哲學은 일즉이 그 數를 보지 못할만치 形而上學에의 思念에 불타고있다. 칸트(一七二四-一八〇四)以後 헤-겔(一七七〇-一八三一) 哲學의 全盛期를지나 新칸트學派가 擡頭하여 獨逸資本主義를 個人主義的 合目的 論的으로 扶掖하였고 他方에 있어서는 個人的 心理의 意識論的 記述을 標榜하는 現象學이 新칸트學派의 先驗論에 反하여 들고 이리났다. 그리하여 世界大戰까지 順調로 資本主義發展의 線에 沿하여 따러 왔었다. 그러나 大戰의 休□喇叭과 같이 獨逸資本主義가 致命的打擊을 받자 哲學의 領域에도 色彩가

좀 달리졌다. 所謂「現代의 形而上學」이라는 「科學의 女王」이 아니라 戰後 資本主義의 奴隸가 形形色色의 粉裝을 하고 登場하여왔다. 日自然主義的 形而上學. 日宗教的 形而上學. 日人間學的 形而上學……

참으로 多歧多樣한 哲學說이 나타났다. 그것을 모두 어떠한 範疇 밑으로 整理한다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윌리·목-」이라는 學者는 「二十世紀의 獨逸哲學」이라는 著書(그라이프스왈트, 一九二二年)에서 그 諸流波를 (一)精神科學的 方向 (二)自然科學的 方向 (三)倫理實踐的 方向 (四)心理學的 方向 (五)論理認識論的 方向 (六)形而上學的 方向의 六個로 類別하고 있으나 도무지 妥當하여보이지 않는다. 또 現今의 獨逸形而上學的 方向을 (一)存在論 (二)人間學 (三)辨證法의 三者로 나누어 보랴구도 하나 이것도 現今의 世界乃至獨逸의 社會的 諸情勢를 考慮하여볼 때는 아직도 問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獨逸의 現在의 哲學的 諸說을 (1)實在의 哲學(又是 不安의 哲學) (2)新토-마스哲學 (또는 新스코라哲學) (3)新헤-겔哲學의 三者로 分類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論述의 主題가 되어있는 「하이텍겔」은 나의 말하는 세 가지 哲學派中 어떤 것에 屬하느냐 하면 그것은 實存의 哲學 卽 不安의 哲學에 있어서 代表的인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다 認定하는 바이다. 그러면 實存의 哲學이란 무엇이나? 이것을 論述하는 것은 척이나 繁雜한 일이다. 그러나 簡單히 말하자면 뷔렌타노(一八三八-一九一七)에 依하여 地境이 닳이고 「후스셀」(一八五九-)에 依하여 建策된 現象學(페노메노로기-)의 發展形態라고 할 수 있다. 그 大略의 內容은 次節에서 「하이텍겔」의 哲學을 瞥見함에 依하여 짐작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實存의 哲學이라는 것이 現今獨逸의 哲學界에서 가장 努力있는 듯이 보이고 또 獨逸哲學의 直接的 影響 밑에있는 日本哲學界에서도 꽤 많은 關心者를 이끌고 있는 듯하다.

三, 하이텍겔의 哲學-不安과 無의 哲學

하이텍겔의 哲學을 이같이 「不安의 哲學」 또는 「無의 哲學」이라고 얼른 斷定하여버리는 것은 그의 全體系를 理解하는 데에 있어서 꽤이나 危險한 □險이다. 嚴密하게 그의 哲學을 研究하여보면 참으로 人生生活의 平凡하면서도 深奧한 機微에 透徹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다. 더구나 現代의 인텔리켄치아의 生活과 關聯하여 볼 때에는 여간 그 애뜻한 芳香(!)에 誘惑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의 젊은 哲學徒들에게 많은 關心을 가지게 하는 것이겠다. 그의 哲學에 있어서는 「不安」이라던가 「無」라던가 하는 것이 꽤이나 重要的 것이다. 그렇다고 대번에 그의 哲學을 不安

의 哲學 또는 無의 哲學이라고 하는 것은 좀 庸突하기도 하나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도리어 「無」니 「不安」이니 하는 것으로 그의 哲學을 한 데 묶어서 論述하는 것도 한 가지 方便이라고 생각 한다.

그는 人間的 存在(그는 이것을 「다짜인」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根本적으로 究明하여 보라고 한다. 이것이 그의 基礎的 存在論의 最初의 問題이다. 「存在와 時間」이라는 그의 主著는 이 問題의 提出로부터 出發하고있다. 그런데 一般으로 存在者라고 하면 우리의 日常生活에서 늘 當하고 부닥 드리는 여러 가지 것을 云謂하는데 그러한 存在者의 意味를 묻(問)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 意味 卽 存在者의 存在에 對한 質疑가 明白히 解答되면 存在의 問題는 解決되는 것이다. 그는 存在者와 存在와를 區別하고있다. 그런데 우리 人間自身도 다른 存在者와 같이 한 개의 存在者이나 이 存在者는 特히 存在者에 對한 質疑를 提出할 수 있는 存在者이다. 그래서 人間은 다른 存在者와 區別하여 術語적으로 現存在或은 人間的 存在 다짜인이라고 부른다. 이 다짜인이라는 것이 그의 形而上學의 中心課題인 것이다. 그런데 이 다짜인은 世界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世界內存在」라는 것이 우리 人間存在의 根本構造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世界內存在」라는 것은 人間이 世界와의 關係에 있어서 生하는 內面的 關係이다. 人間的 存在라는 것은 다른 存在者들에 依하여 제 自身을 表現하는 것이 아니라 人間的 存在 제自身에 依하여만 저를 表現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換言하면 그의 形而上學에 있어서는 「世界內存在」로서 다른 存在者에 交涉關係를 가지는 「自覺存在」이것을 그는 엑씨스텐츠라고 말한다.-로서의 人間存在만이 그의 哲學에 있어서는 重要的 것이다. 이러한 方法에 依하여 비로소 그는 存在라는 것의 具體的 全體的 把握이 可能하다고 한다.

人間이라는 것을 이 같은 形式에서 把握하려고한 哲學者는 그리 많지 못하였다. 그는 個人的 人間을 單只 原子的으로 評價하지는 않았다. 世界라는 것과의 關係밑에서 考察하였다. 이러한 人間考察은 「포이엘마하」의 云謂하는 人間과 一脈相通하는 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말하는 人間이 참 意味에 있어서 社會的 人間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많은 問題를 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먼저도 말한바와 같이 그의 「形而上學이란 무엇이나」를 가지고 볼 것 같으면 「形而上學的 質疑의 展開」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 次間的 存在의 本質的 狀態를 出發點으로 삼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人間的 存在는 어떠한 存在者에 對한 特別한 世界關係에 있거나 어떠한 態度를 가지거나 또는 그것에 侵入하여 있거나하는 세 가지의 存在機式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때에 所謂無라는 것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 하여 그러면 「無라는 것은 무엇이나」라는 문제가 또 생기게 된다. 이 無의 문제를 解明하는 것은 卽 그의 哲學을 理解하는 열쇠가 된다고 하여도 좋다. 지금까지 말하여온 그의 形而上學의 內容이 讀者에게는 너무나 疎遠하여 理解하기 어려울 줄 아나 적어도 그의 哲學을 말하자면 이것만은 最小限度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나 하는 것의 輪廓이나 마 어렵듯이 干先 아래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의 哲學이 無의 哲學이라고 云謂되는 根據는 어디있나 無라는 것을 學術은 存在하지 않는다고 하여 내버린다. 그러나 無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나고 묻는 最初부터 異常한 무엇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無라는 것을 根本적으로 把握하자면 悟性이나 思惟로서는 不可能하다. 無는 그 「基礎經驗」(그룬드엘파-룽그)에 依하여서만 探求될 수가 있고 悟性에 依하여 妨害되는 일은 없다고 한다. 그러면 그 基礎經驗이라는 것은 무엇이나 하는 것이 當然問題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것은 氣分이라고 하는 正體모를 것에 依하여 云謂될 수 있는 것이며 無는 不安이라고 하는 氣分에 依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말한다. 「不安은 無를 나타 낸다 우리는 不安속에 떠(浮)있다.」고.

이 不安 이라던가 無라던가 하는 것에 對한 그의 解釋은 참으로 巧妙하다. 그의 論述의 態는 바로 現代의 社會的 危機에 處하여 不安과 動搖에서 虛를 느끼고 스스로 자지러지는 인테리의 心理를 어찌면 그렇게 그려 내었을까 하는 嘆聲을 내게 할만치 巧妙하고 □密하게 그려놓았다. 더욱 그의 哲學이 氣分的이라고 하느니 만치 그의 著書를 읽으면 氣分的인 소소로침이 마음을 掩襲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의 哲學이 現在로부터 出發하는 點 더구나 그 道具는 (그것은 푸라그마티즘 더욱 쥘 뒤이의 道具論을 聯想케 할만치) 確實 在論的이다. 그러나 畢竟은 지금 말한바와 같이 觀念的인 것이다. 存在를 너무 그 저쪽에 氣分的으로 無라던가 不安을 云謂할 그의 哲學이 徹底한 意識論的 觀念論인 것은 누구나 認定하지 않을 수가 없다.

以上은 그의 哲學에 對한 極히 粗略한 論述에 不過하나(그의 哲學의 構成에 있어서도 또 다른 重要的 概念이 있으나 다 지금 말한바와 聯關하여있다)如何間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에 對하여서는 어렵듯이 짐작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上記한 實存哲學에 있어서 가장 代表的이라고 할 수 있는 思想이다. 實存의 哲學에 있어서는 이 「하이텍겔」과 그와는 傾向이 좀 다른 「야스펠스」의 二人이 그 代表的인 人物이다.

四, 나치스와 獨逸精神

끝으로 나치스와 「하이텍겔」과의 關係에 對하여 一言하러 한다. 前述한바와 같이 하이텍겔은 나치스에 入黨하여 資本主義□護에 對한 最後의 血戰을 하고 있는 히틀러의 摩下에서 知的奉仕의 일을 하고 있다. 그의 哲學의 氣分 觀念的인 特色과 이 知的 奉仕와를 同時에 생각하여 볼 것 같으면 그의 哲學은 히틀러의 支配를 爲한 이데오로기의 投創을 하고 있음을 곧 看取할 수 있는 일이다. 假使 그의 哲學 나치스의 哲學으로서 애초부터 成長하여 온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現代의 獨逸의 社會的 情勢로부터 考察하여보건대 그것은 辨明의 餘地가 없는 儼然한 事實이다. 現實의 深刻한 生活苦와 그것으로부터 解放되려고 몸소 내달어 싸우는 自由를 爲한 社會의 進行을 極히 氣分的으로 理解하고있는 하이텍겔의 哲學이 「矛盾」을 非科學的으로 理解하며 따라서 그것을 超克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隱蔽하려고하는 나치스의 政論과 符稱한데 對하여서는 何等의 不自然이 없다.

나치스가 獨逸國家 獨逸民族이라는 것을 언제나 떠바뜰고 있는 것 따라서 民族과 國家를 爲한 全體主義 밑에서는 個人的 利益은 언제나 犧牲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다 아는 事實이다. 그러나 凍死餓死가 발등 밑에 迫頭하여있는 經濟的 絶望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수가 있을가. 이 痛切한 現實問題에 當面하고 있으면서도 國民社會主義 獨逸 勞動黨은 放送煽動演說과 街頭行進으로서 民衆에게 犧牲과 奉仕를 要求하고있다. 그뿐이라 再昨年여름 學期以來獨逸에서는 大學總長은 모두 나치스黨員이라야만 된다고 하여 學界의 大家 巨人으로서 히틀러에 對한 忠誠을 拒否하는 사람은 모두 逐出을 當하였고. 學問과 研究의 樂園으로서 그 自由로운 學風과 制度를 자랑하던 二十餘個所의 大學은 나치스에 依한 大學制度 改革案 밑에 無慘히도 蹂躪을 當하고 말았다. 흥이 健實 尙武 豊富한 研究心 等으로 表現되던 獨逸民族性은 나치스에 依하여 一定한 目標과 시슴의 獨步를 爲한 神話에 奉仕하도록 强要되고 있다. 그리하여 大學은 나치스의 所謂 精神的 革命의 基礎의 確立을 爲하여 再出發하지 않으면 아니게 되었다. 「하이텍겔」은 이 「精神的 革命에 寄與하기 爲하여」 質粗한 書齋에서 研究不怠하던 生活까지도 犧牲하고 나치스의 大學改造에 奔走하고 있다 한다. 特히 그가 昨年에 한 푸라이브룩大學總長就任演說은 「大學生活의 自由」를 獨逸大學으로부터 放逐하는데 있어서 決定的인 것이었다. 純粹한 피의 民族 永遠한 國家의 存在 이 두 가지를 爲하여 나치스는 獨逸精神에 새로운 神話を 構成하고있고 「하이텍겔」은 그 執行者의 一人이다. 나는 그것이 좋고 그르다는 價値判斷을 나리는 것을 暫間保留한다. 왜 그러냐하면 大學의 自由와 研究의 神聖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權力者에 依하여 侵害되는 것이 먼저 究明되어야만 할 것이므로 이다. 「하이텍

겔」이 獨逸大學의 使命으로서 勞動奉仕 國防奉仕 知識奉仕의 三者를 들어 超階級的 國民共同의 責任을 다하여 最高의 權威 國家에 對한 絶對的 隸屬을 主張하였을 때 아마 나치스의 指導者들은 會心의 微笑를 띠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땀과 피와 血을 土臺로 한 새로운 獨逸精神의 形成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끝으로 이 稿를 마치기 前에 「하이텍겔」에 對하여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그의 人間生活의 特質에 對한 論據이다. 그는 人間生活의 特質을 카토릭的 罪惡觀에 두고 있다. 그가 카토릭의 信者로서 그렇다는 것보다 나치스의 宗教觀과의 連繫下에서 또한 吾人의 興味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日常生活이 自然과 社會에 適應하는 努力이 아니라 原罪에 依한 墜落(페어팔렌)으로부터 救濟되기 爲하여 死에 對한 覺悟를 가져야만 하고 그 覺悟로부터 現實存在의 再生을 企圖하지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死의彼岸에 무엇이 있으며 無를 왜 設定하지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에 對하여서는 아직 吾人에게 答하는 배없다.

何如間 그의 哲學은 平凡하면서 일즉이 보지 못한 哲學的 論述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事實로 「人間이 存在하는 以上 哲學的 思索은 없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人間의 存在라는 것은 社會的인 存在的인 存在이고 따라서 그것에 依하여 規定되고있다. 「하이텍겔」은 그 好個의 例證이다.

나치스의 哲學者로서의 「하이텍겔」은 이와 같이 平凡하면서도 偉大한 哲學者이기도하다.

(十月八日 夜半)